

5. 18민중항쟁과 미국

윤 한 봉



**윤한봉** 선생님은 1980년 5·18 민중항쟁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수배를 받던 중 1981년 밀항, 미국으로 망명하여 '최후의 5·18수배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재미한인청년연합'을 결성하는 등 해외에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으며 1993년에 귀국하여 현재 민족미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운동화와 동가방』이 있다.

제가 민족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지내고 있는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제 후배들이 자리를 마련해주어서, 소장이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1948년생인데 6·25가 53년에 끝났습니다. 그때가 만 5살 때였는데, 전쟁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건 군대가는 남자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면사무소에 모이고, 그 어머니나 아내들이 울고불고 땅을 치던 모습,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왜 우는 지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80년 이후에 태어난 여러분에게 5·18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이 대학원론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다른 대학생들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주제를 받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5·18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었나 등과 같은 내용이 아니고 5·18민중항쟁에 미국이 어떻게 개입이 되어 있는가, 즉 '5·18과 미국'이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들이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세계 곳곳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강대국일 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는 미국과 다르게 대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원주민들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당시의 과학수준과 경제력, 그리고 지식수준을 가지고 여하튼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다고 했을 때, 수레 하나도 없고, 말도 없어서 걸어서 수렵, 채취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이 좋게 살자고 사정하면서 그들의 땅 어느 한쪽을 빌려서 농사짓고 살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을

비판할 때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미국의 대외정책과 부마항쟁

1978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세계는 제2차 유류파동이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1차 유류파동은 1967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간의 전쟁으로 석유생산과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2차 유류파동은 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감산과 이란의 혁명투쟁의 영향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었냐 하면, 78년 12월부터 80년 7월 사이에 석유가격이 배럴당 12.9달러에서 31.5달러로 급등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제2차 석유파동의 충격으로 우리경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수출은 줄고 실업은 높아지고 물가는 폭등하고 임금은 낮아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 마산 등과 같은 지역들에는 항만에서 종사하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79년 10월 중순에 일어났던 부산, 마산, 창원지역의 항쟁, 즉 부마항쟁의 경제적 배경이 됩니다.

미국의 카터정부는 60~70년대의 베트남 전쟁에 과다 투입한 군비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재정 적자와 78년 이후의 제2차 유류파동에 따른 불황에 시달리는데다 79년 2월의 이란혁명의 성공, 79년 7월의 중미 니카라과의 혁명 성공 등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이 형성이 된 이후 소위

말하는 냉전이 시작되고 진영 대결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미국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몇몇 지역에 말뚝을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가 터키고, 또 하나는 페르시아만의 유전지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베트남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서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한반도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터키에서는 민족주의적인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그 말뚝이 빠져나갔고 그 후로는 이스라엘이 그 말뚝 대신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란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이 이란 대신 이라크에 말뚝을 박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두들겨 팬 겁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는 우리만 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당시에 미국은 상당한 공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카터정부는 친미적인 이란의 팔레비정권과 니카라과의 소모사정권을 적극 지원하였지만 결국 두 친미정권은 무너지고 대신 강력한 반미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은 친미적이지는 하나 고분고분하지만은 않은 박정희정권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국 상황에 주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시 국내에서는 박정권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아주 낮았다는 것입니다. 78년 12월에 있었던 총선 결과 박정희가 만든 공화당의 득표율은 31.7%에 그쳤고 야당이 1% 많은 32.8%였고, 또 다른 제2야당인 통일당이 7.4%, 무소속이 28.1%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석수에서는 여전히 공화당이 과반수였습니다. 왜냐하면 희한하게도 유신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직접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선에

서 공화당이 31%밖에 못 얻었지만 국회의석은 과반수를 넘게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박정권에 대한 각계각층의 저항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0년대 이후로 계속돼왔던 치열한 반유신투쟁이 각계각층으로 확산이 되면서 힘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된 사건은 79년 3월 1일 날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전국연합'의 발족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직대통령이었던 윤보선, 함석헌 선생님, 김대중씨 이렇게 세 분이 전국연합의 공동의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79년 5월에 야당 신민당의 총재로 김영삼씨가 선출이 되었는데 선출되자마자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는 정권타도를 외치기도 했고, 그 때만 해도 엄혹한 반북냉전시대였는데 언제 어느 때라도 조건 없이 김일성을 만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는가 하면, 또 미국이 우리나라의 독재정권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좌충우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때 박정권은 비판,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력을 잃고 오직 물리력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체포, 고문, 투옥, 직장에서의 해고 등을 통한 직접적인 물리적 탄압만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검토한 미국은 한국에서 정치적 대립이 폭발해서 제2의 이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란이나 니카라과처럼 되기 전에 박정권 대신에 친미, 반공, 반북적이면서도 좀더 온건한 정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최선의 반미 혁명 예방책이자 동북아의 강력한 전략거점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군사적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우리에게 무기 팔아먹고

쌀 팔고 인권에 대해서 몇 마디하고, 대신 주한미군 철수가 진행되던 것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돌아갑니다.

같은 해 8월 9일 날 YH 여성 노동자들 175명이 신민당 당사에서 장기농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8월 11일 강제진압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한 분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 개강한 전국 각 대학에서는 대규모 반유신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게 좌충우돌 대들었던 김영삼 총재가 79년 10월에 국회에서 제명처리되어 버립니다.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 버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79년 10월 4일 발생한 일인데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의 정치지도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분개했습니다. 그것이 부마항쟁의 원인 중에 정치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부마항쟁은 10월 16일 학생시위로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에 시민들이 대거 가담하면서 일종의 민중항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다음날 더 심해지게 되면서 수많은 파출소 및 공공기관이 불타고 시위대 참여자가 오만 명까지 늘어나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확산됩니다. 이것이 마산지역까지 확산되어 마산공단의 노동자들이 대거 대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 여파가 창원공단으로까지 미치게 되니까 정부에서 놀라서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공수특전단을 투입해서 강력진압을 하게 됩니다. 마산지역은 위수령, 부산지역은 계엄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위가 3일 만에 급속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강력 진압을 하니까 그 시위의 폭발력이 삼일 만에 잦아든 겁니다. 여기에 바로 5·18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희 피살

여하튼, 이로 인해서 유신체제의 핵심, 심장이 터지게 됩니다. 정부 내에서는 ‘강경진압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강경진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뭔가 유연한 대응,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온건/강경으로 갈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박정희가 10월 26일 밤에 피살을 당합니다. 어쨌든 부마항쟁이 터지자 군사정권은 상투적인 수법을 사용했는데,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사전 항쟁예방 또는 봉기예방의 수단으로써 꼭 폭력배나 우범자를 잡아드리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었습니다. 그 수법으로 치안본부가 10월 23일 날에 전국에서 4,207명을 우범자라고 해서 검거합니다. 10월 24일 날 드디어 정부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대구 쪽으로 불뚝이 튕니다. 부산, 마산, 창원은 가라앉았는데 대구 계명대에서 2천여 명이 강력한 시위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영향으로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씨에 의해 박정희가 죽습니다. 그리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온건군부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박정희가 죽자마자 미국 국무성에서 나온 성명이 재미있습니다. “... 우리는 한국에서 일어난 사태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다. 미국은 이것을 한국의 국내문제로 간주하여...” 누가 국외문제라고 주장했습니까? 미국 스스로가 국내문제를 강조하며 “...모든 당사자에게 절제를 당부한다.” 이 성명서의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 한국 언론에서 언제 국제문제라고 떠든 적이 없는데 국내문제라고 강조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건방지게 10월 30일 날, 박정희가 죽은 바로 며칠



후에 싸이런스 밴스 미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성장이 경제적, 사회적 성장과 부합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70년대 미국 언론계에서나 정계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정치사회적 성장이 늦어서 괴리가 있다’, ‘사회적 갈등, 불안이 많다. 따라서 정치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이 신장되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박대통령의 후계자 선출은 한국의 내정문제이지만 상담을 해온다면 미국의 의견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후계자 선출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상담해 온다면 의견을 전할 수 있다니... 여러분들은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세요. 박정희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 비밀문서가 해제 된다면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비밀해제된 문서를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일이 있어서 신청해서 본 적이 있는데 한 장에 단어 하나를 남겨놓고 다 지워버린 문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지워진 장도 있었습니다. 비밀해제라는 게 모든 것을 다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어 몇 개, 몇 줄을 가지고 말을 짜 맞추는 겁니다. 역사의 진실은 당사자들의 증언으로밖에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교문건으로 안 밝혀지면 당사자들의 증언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김재규씨의 박정희 암살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혹이 많습니다.

당시 주한미대사였던 클라이스틴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은 김재규를 자주 만나 미국이 박대통령의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79년 6월 20일, 카터가 방문하기 9일전에 글라

이스턴이 워싱턴에 보낸 비밀전문 내용 중에는 김재규하고 만나  
나는 다음과 같은 대화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대화 중에 나  
는 김씨에게 인권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또 그런 시각에서 미국  
국민들은 박정희-카터회담을 주시하고 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  
했다. 김씨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했다”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주한미대사로 온 도날드 그레그가 73년에  
서 75년 사이 미국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김재규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규에 대해서  
그는 “내가 매우 감탄을 했던 사람이다. 온건주의자였고 트인 사람  
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지부장으로 3년 근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76년에 텍사스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박정  
희가 다시 6년의 임기를 마친 후 대통령에 다시 출마한다면 그는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중앙정보  
국이 한국 내에서의 박대통령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지원할 것이  
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람이 바로 도날드 그레그입니다.

여기서 박정희가 또 한번 6년 임기의 대통령을 하기 위해 치러졌  
던 78년 7월 6일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당시 대통령 선출은 통일주체국민회  
의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의 간접선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박정  
희는 말할 것도 없고 전두환까지 그렇게 뽑혔습니다. 어쨌든 78년  
7월 6일 통대회에서는 제9대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했습니  
다. 언제나 후보는 혼자였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도 아니  
고 박정희가 단독 입후보합니다. 그래서 2,578명이 모여 투표한  
결과 2,577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도장을 잘 못 찍어서 무효표 처리

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년 전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엇그제 망한 이라크의 후세인과 바트당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2,578표 중에서 2,577표가 찬성, 무효 1표, 그것도 단독입후보, 그리고 그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하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정희 암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79년 11월 6일 날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가 벤스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비밀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장례식이 끝난 후의 일입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한국에 관한 청문회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 ... 우리가 박대통령 피살에 공모가 없었다고 말해도 그 청문회는 우리가 박대통령을 암살한 공모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에 염려한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허위 선전인 이 같은 주장이 외부에 알려지는 일을 피해야 한다” 미국 하원 동아시아위원회에서 한국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글라이스틴이 급하게 본국에 보낸 전문입니다. 그 전문에 대한 답이 왔습니다. 홀부르크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글라이스틴에게 보낸 전문인데 “지금은 미묘한 시기여서 나는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린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한국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홀부르크가 청문회를 주도한 하원의원이며 동아시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울프에게 말한 내용을 보낸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니 그럼 비공개로 하겠다고 했고, 홀부르크가 그마저도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결국 비공개로 청문회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동아시아위원회 위원장인 울프가 어떤 사람이냐면, 박정희 장례식장에 미국의 조의사

절단의 한 사람으로 따라와서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에게 “박대통령을 암살하라고 부추김으로써 당신 손에 피를 묻혔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비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원의 청문회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글라이스틴이 급히 막아달라고 연락을 했고 차관보가 사정사정해가지고 결국에는 청문회가 안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암살사건이 있고 난 후 12·12 쿠데타가 성공하여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쿠데타 이틀 후인 12월 14일 날 글라이스틴이 전두환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를 훗날 회고하면서 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솔직하고 설득력 있게 그 기회를 10·26사건과 - 그러니까 박정희 암살사건과 - 우리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암살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시키려는 - 사형당할 것이 뻔하니까 - 어떠한 의도도 없음을 설득하는데 (그 만남을) 활용했다.”

### 체로키(Cherokee)와 12·12쿠데타

어쨌든 79년 11월 4일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란 학생들이 테헤란시의 미대사관을 점거합니다. 직원 60명을 인질로 한 장기농성을 시작하면서 달아난 팔레비의 인신 인도를 요구합니다. 79년 11월 4일부터 시작해서 81년 1월 20일까지 1년 이상의 장기 점거농성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대사관에 있는 비밀문서를 모조리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안 미국이 어떤 짓을 했는지 폭로되고,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카터정부의 대이란정책은 온건한 친미·반공·반북 정권수립을 통한 제2의 이란화 예방책에서, 강경하고 확실한 친미·반

공·반복적인 군사정권 수립으로 급선회합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을 점거한 바로 그 다음날 카터정부는 극비리에 백악관 내에 ‘체로키(Cherokee)’라는 비상한국대책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그 다음날 한국대책반을 만든 겁니다. 이 체로키라는 대책반이 그렇고 그런 중급 하급 관료들로 만들어 졌다면 별문제가 안 될 겁니다. 한테 10명의 멤버들이 어떤 인물들이냐 하면 카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방장관, 국무장관, 중앙정보국장, 백악관 안보보좌관, 국가안보회의 아세아담당 책임자, 그리고 CIA한국지부장을 맡고 있는 도널드 그레그,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대사, 국무부차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이렇게 미국의 최고 지도부가 모조리 참여하고 한국관련 총 책임자들이 참여해서 11월 5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체로키팀은 특별암호를 통해 서울 미대사관 측과 비밀전문을 주고받는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유일하게 그 전문을 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 혼자였습니다. 그만 볼 수 있게 특별 암호로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란에서의 사건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각심을 엄청나게 불러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12·12 쿠데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12월 2일 날 통대위 회의에 의해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12월 7일에는 긴급조치 9호가 해제가 되고, 12월 8일엔 긴급조치 9호 위반 투옥자들이 석방됩니다. 일부 더 완화된 것처럼 유신체제가 곧 철폐될 것처럼 희망을 주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등 각계의 운동진영에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민주

화가 진전되는 것이 아니냐며 고무되었고, 노동자, 농민, 빈민들 모두 다 숨도 좀 쉬고, 말도 좀 하고, 조금 더 잘 사는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며 기대에 들떴습니다. 박정희가 죽고 긴급조치가 해제되고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나며 전국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저도 12월 8일에 세 번째로 감옥에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12·12 쿠데타가 일어나 박정희가 키워냈던 ‘하나회’ 중심의 강경 친미, 군부, 흔히 말하는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온건파인 정승화 일당을 모조리 작살을 냅니다. 그러면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전면 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12·12 쿠데타가 터지자 뭔가 잘 되리라고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각계각층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절망과 분노를 느끼며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하며 또다시 투쟁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또한 갈수록 우리에게 일은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미국에게 얻어터지던 아프가니스탄에서 79년 12월 25일 친소 쿠데타가 발발합니다. 그리고 쿠데타에 대한 일부의 저항이 있자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구진영은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되면 소련이 이란이나 파키스탄과 외교적 협상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밀어 붙여서라도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소련의 인도양 진출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미국은 다급해지고 미·소간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80년 2월 미국, 유럽 등이 모스크바올림픽에 불참을 결정하며 반쪽 올림픽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카터가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이 점거하고 있는 테헤란 미대사관에 있는 미국인 60명의 인질들을 구출하는 비밀군사작전을 시작하는데 모래폭풍

이 불어 테헤란으로 날아가던 헬리콥터들이 사막에 떨어지는 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80년 4월 25일 일입니다. 연이은 사건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 위신 추락은 말할 것도 없고, 페르시아만에 대한 지배력이 위협 당하고, 이란 또는 파키스탄을 통한 소련의 인도양 진출을 위한 육상통로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카터정부는 한국에서 강경 군사정권 수립을 위한 추진 속도를 더 높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12·12쿠데타로 다시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지만 완전하게는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했습니다. 61년에 박정희 일당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부패정치, 사회혼란 이런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12·12쿠데타도 마찬가지로 그런 명분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자꾸 싸움을 시켜야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80년 2월 29일 윤보선, 김대중씨를 포함해서 687명을 복권시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씨도 정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호랑이를 우리에서 풀어 놓셈이 된 겁니다. 그 때 김대중이 제일 먼저 물려고 달려든 상대는 전두환, 노태우가 아니라 김영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이 물리겠습니까? 자신도 물려고 같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전두환이가 불법적으로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합니다. 보안사령관은 못하지만 중앙정보부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물렁한 민간인 총리와 장관들을 맘대로 가지고 놀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2·12쿠데타를 보고 ‘아! 나쁜 놈의 새끼들, 다

틀렸구나. 이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분노와 절망을 느꼈던 각계각층의 저항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용감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도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합니다. 80년 4월 21일 사북탄광지역에서 탄광노동자들이 떨치고 일어나서 사북읍을 점거하게 되는데 이를 사북봉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29일 부산의 동국제강 노동자들이 대규모의 투쟁을 합니다. 야당도 난리였습니다. 김대중은 김대중대로 김영삼은 김영삼대로 난리였습니다. 그 때 전두환 일당이 질서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이를테면 2단계 쿠데타를 추진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80년 5월 7일에 클라이스틴 주한미대사가 워싱턴에 보낸 비밀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두환, 최규하 이런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어느 구석에서도 범질서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한국정부의 군대를 투입해 경찰력을 강화하려는 비상계획을 미국정부가 반대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런 식의 불만을 나타낼 경우 우리는 한국의 민간지도부와 군부지도부 내의 우리의 친구를 잃게 될 것이다”

군대를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반대한다는 암시만 줘도 우리는 한국의 민간지도부와 군부지도부의 친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한 마디로 군사동원을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클라이스틴이 전두환과 최규하를 만나기 하루 전에 보낸 전문입니다. 그 다음날 이 전문에 대한 크리스토퍼 미국무차관의 답신이 왔습니다. “우리(미국정부)는 법과 질서유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비상계획에 반대해서는 안 되는데 동의한다.”

마찬가지로 5월 7일에 클라이스틴이 워싱턴에 보낸 비밀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군부가 우발적 상황과 학생들의 시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2개 공수여단을 서울과 김포공항 지역으로 이동시킨다는 사실을 주한미군 지휘관들에게 알려왔다.” 벌써 5·18 한참 전인 5월 7일에 주한미대사가 학생들의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2개 공수여단이 서울과 김포공항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운동을 했던 모든 분들은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CIA만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정보기관들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 미국의 국방정보국(DIA)이 5월 8일에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 비밀전문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모든 특전사 부대가 비상대기 중이며 3공수여단은 5월 6일 이미 서울로 이동을 했고, 5월 7일 11공수여단 62대대도 서울지역으로 이동했다. 서울외곽에 남아있던 부대는 7공수여단 뿐으로 이 부대는 아마도 전주와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소요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가 광주로 온 겁니다. 이 내용이 5월 8일 국방정보국이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완벽하게 쿠데타 준비를 갖춰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5월 8일 클라이스틴 주한미대사가 워싱턴에 보낸 비밀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 김대중, 김영삼 및 기타 인사들이 학생들에게 전투환은 물론 신현확 국무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등 위협스런 행동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충돌 상황을 고조시킬 것이다. ... 이런 상황을 조성한 많은 책임이 성숙하지 못한 학생과 급진적인 학생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민주화를 요구하고 유신잔당 처단을 주장하는 학생시위를 김영삼과 김대중이 배후조정하고 있고, 또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명칭하게 자꾸 사건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학생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식으로 보고를 올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5월 14일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정부당사자들과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국 사태를 협의하러 간다면서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5월 8일에 국방정보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공수특전단 전부가 지금 도시주변으로 이동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국에 보고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나라 문제를 상의한다고 본국으로 가버립니다. 이튿날 5월 17일 밤의 쿠데타 당시 자신이 여기 한국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쇼였던 겁니다.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5월 14일이 어떤 날이었나면, 13, 14일 양일간이 우리나라에서는 '코프제이드 80II'라는 한미연합훈련이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군사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버린 겁니다.

5월 15일 날은 학생운동이 최고조에 달해 30개 대학 10만 여명의 학생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계엄해제를 요구하고 전두환 퇴진, 유신잔당 척결을 요구하는 야간시위를 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시내에 진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진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 계엄이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계엄으로 확대됩니다. 완전히 공포분위기 속에서 모인 장관들의 회의석상에서 국방장관이 일방적으로 계엄확대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11시 40분경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반유신, 반박정희, 반군사독재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 중 감옥에 갔다 왔던 찍힌 사람들을 일제시대처럼 모조리 법적 근거도 없이 예비검속을 해버립니다. 자고 있는데 속옷 바람으로 다 끌고 가 버립니다. 김대중씨 등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운동가들은 전국 각지에서 예비검속을 해버렸던 겁니다. 광주에서도 학생운동 출신으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을 두 사람만 빼고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17일 밤에 안 잡혀간 사람 두 명 중에 한 명이 저였는데, 그때 저는 가방을 메고 오늘은 이집, 내일은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5월 18일, 민중항쟁 발발

5월 14, 15, 16일 3일 동안에 광주에서는 ‘민주화대성회’라고 해서 광주의 모든 대학, 전문대, 대동고등학교, 전남고등학교 등의 고등학생들까지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항을 뚫고 도청 앞 광장을 점거하고 민주화대성회를 하고 시내 촛불행진을 하는 등등 전국 어디서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서울은 15일 날 끝났는데 광주는 16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7일은 쉬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만일 휴교령이 내리면 그 다음날 10시에 모두 자기 대학교 정문으로 모여서 싸우기 시작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전국적으로 4개 대학 밖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남대, 계명대, 숙대, 하나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곳이 전남대였습니다. 200여명이 주머니에 돌도 이만큼씩 넣고 정문 앞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때는 이미 밤새 계엄군들이 전남대, 조선대를 점거하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친구들, 벤치

에 앉아 기타 치던 학생들을 모조리 잡아가서 작살나게 두들겨 팬 뒤였습니다. 그걸 모르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돌을 한 겁니다. ‘야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남의 대학교를 장악하고 난리냐?’ 그랬더니 착검한 총끝으로 학생들에게 쏘서 대서 학생들은 피를 흘리게 되고 기겁을 한 학생들은 시내로 도망쳐 나와서 악을 쓰면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시민들이 하나 둘씩 가담을 해서 시위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는데, 오후쯤이 되자 공수부대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착검한 총을 어깨에 걸고 나타나서는 구경하는 시민들까지 내리 찌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5·18이 학생시위에서 민중항쟁으로 서서히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부마항쟁은 계엄령이 내리고 공수특전단이 투입되어 강경진압 하나까 찾아들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5·18은 그때하고는 달랐습니다. 전두환 일당은 공수특전단을 투입해가지고 강력하게 탄압을 해 버리니까 쉽게 진압이 된다는 것을 부산·마산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역시 강력진압을 합니다. 부산·마산보다 훨씬 더 잔혹한 방법으로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초전박살로 쉽게 끝낼 줄 알았던 겁니다. 막 쏘시고 쇠파이프로 머리를 깨버렸을 정도로 탄압은 잔혹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져 집밖으로 안 나오게 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때려버리니까 구경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불났다고 하면 자다가 숙옷 바람으로라도 나오는 사람들, 밥 먹다가도 싸움만 나면 조르르 뛰쳐나와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안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가 너무 지나쳐 버리니까 전두환, 노태우 일당

과 미백악관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백정들같이 잔인무도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저리도 파리 목숨같이 여길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쓴 놈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면서 이것저것을 다 초월해서 그 학살만행에 분노해 버린 겁니다. 분노가 너무 지나쳐서 공포에 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와의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자기 신체와 안위, 혁명 이런 거 다 떠나서 맨손으로 ‘예이,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며 쭈시고 때리고 그러는 군인들에 맞서 맨 몸으로 대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2층에서 내다보다 그런 군인들의 만행을 보고 재떨이를 던지고, 화분을 던지고,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쓰고, 졸도해서 쓰러져 버리고, 할머니들이 군인들한테 달려들고 …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광주시의 모든 철물점에서 망치, 찌구, 못 빼는 데 쓰는 빠루 등의 모든 연장들이 다 팔리고 없었습니다.

광주천변에 건축자재상들이 쪽 펼쳐져 있는데, 민청학련 동지들과 후배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검속 당해서 끌려갔다가 나중에 석방되어 나와 보니까 요만한 철근토막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많던 것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10미터가 넘는 철근들은 들어서 들고, 같이 들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끌고 방직공장 아가씨들까지 파이프를 들고 나갔습니다. 처음 18, 19일은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쫓아 다녔습니다. 그러던 시민들은 싸우다 도망갔다가 또 다시 모이고, 또 계엄군이 쫓아오면 다시 도망가고 또다시 모이고 그랬는데 20일부터는 시민들이 계엄군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공격을 하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발포해

도 소용없고 쇠파이프를 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총 쏘면 도망갔다가 다시 모여서 싸우는 식으로 말입니다. 세상에 피 흘리면서 아리랑을 부르고 그랬습니다. 아리랑이랑 군가랑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전투장면에서 기병대들이 나팔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과 아리랑이 맞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봉선화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5·18은 세계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항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면서 싸운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싸운 결과 21일 오후 4시경에 계엄군이 도저히 못 견디고 시내에서 빠져 나갑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점거하고 있었던 전남대, 조선대 그리고 도청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전남대에 주둔해 있었던 병력들은 교도소로 빠져 나갔고 도청 병력들은 화순 밑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21일 밤부터 시민들이 도청을 장악했습니다. 5월 20일은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도청 광주역, 전남대, 조선대 등을 밤새워서 공격을 했습니다. 계엄군들이 시위대들을 잡아다가 둘 곳이 없으니까 교도소, 전남대, 조선대의 운동장에 무슨 포로들을 잡아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가둬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포로들을 구출한다’라고 무슨 일병 구하기처럼 시위대들은 계속 공격을 했고 계엄군들은 수류탄까지 투척하면서 막았던 겁니다. 이렇게 시위대들은 밤을 꼬박 새우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총 쏘면 도망갔다가 다시 나타나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5월 21일에는 드디어 ‘안 되겠다. 우리도 무장을 하자’ 해서 지방으로 내려가 나주부터 경찰서 무기고를 깨부수고 무장을 합니다. 화순 탄광에 가서 다이너마이트도 가져오고 당시 트럭, 장갑차 등을

생산하고 있던 아시아자동차공장에 있는 군용 차량도 끄집어내서 타고 지방을 돕니다. 그래서 전남 일원으로 항쟁이 확산되고, 각지의 무기고에서 무기를 가지고 광주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총 쏘는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두들 총을 짊어지고, 돌을 막는 것이지 총알을 막을 수는 없는 경찰들에게서 뺏은 방석모를 어설피게 쓰는 등의 방식으로 해서 드디어 시민군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싸움이 진행되었는데 21일 날 클라이스틴이 워싱턴에 보내는 비밀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심할 여지없이 대규모 폭도가 광주시를 일시적으로 장악했다. 정부당국은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22일 날 미국은 전두환·노태우 일당으로부터 도저히 이 병력만을 가지고는 광주를 탈환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비사단도 아니고 최전방에 있었던 20사단의 광주 파견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어차피 군 지휘권이 미국한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20사단의 광주 증파를 승인해 달라는 전두환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 날이 5월 22일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체로키팀에서 모두 결정하는 겁니다. 22일에 클라이스틴 미대사가 한국정치·군부 관계자들과 만난 뒤 워싱턴에 보내는 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 군부에게) 한국 군대가 광주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문제가 다른 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개하는 노력들을 우리(미국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또 그럴

의사가 없었다. (공개될 경우) 우리가 계엄당국과 공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광주지역에서 반미감정이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사태를 진압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부를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이 전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런 노력을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알려지면 반미 운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짜고 한 겁니다. 그래서 20사단이 내려오고, 5월 27일 날 공수특전단이 탱크를 앞세우고 광주로 들어오게 되는데, 광주진압작전을 27일로 결정한 이유도 미국의 항공모함 하나가 부산항으로 도착하는 걸 기다려서 하려고 한 겁니다. 그 항공모함은 북의 오폭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들어 온 것이지만, 5·27일의 광주진압작전은 실질적으로 한미연합작전이었습니다. 공격시간도 상의해서 결정하고 병력 배치도 상의해서 했습니다.

5월 24일 김재규와 그의 똑똑한 몇 명 부하들이 사형을 당합니다. 중요한 사건의 증인들이 그 와중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5월 27일에는 민중항쟁이 종료됩니다. 새벽에 진압작전이 시작돼서 동트기 전에 끝나게 됩니다. 5월 22, 23, 24일까지는 광주는 해방세상, 대동세상이었습니다. 모두들 보면 싱글싱글 웃고,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모두들 총을 들고 있었는데도 범죄 하나 없는 그런 꿈같은 세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민들은 다른 어디선가 또 터져 주리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 이긴다’고 말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어디서든 터지겠지. 그럼 우린 이긴다.’ 이런 희망과 기대 속에서 길거리를 청소하고, 봉쇄되거나



적십자는 평소에 돈을 잘 걷었으면서 입 딱 닫고 피 한 방울 보내주지 않자 부족한 피를 자기들이 헌혈해서 해결하고, 봉쇄되어 물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까치담배 나눠 피우고, 라면 한두 개씩 나눠서 먹으면서 물가도 오르지 않는 등, 그렇게 사람 사는 거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일까지 외부에서 봉기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봉기가 안 일어나니 25일부터 광주시민들은 불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광주는 포위되었고 전화는 끊겼고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21일 이후로 아무도 광주로 못 들어오게 봉쇄했는데, 25, 26일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시민들이 서서히 집으로 들어가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최후항쟁을 준비하는 세력들이 도청항쟁 지도부를 만듭니다. ‘이 항쟁은 비록 깨지지만 죽음으로써 정신적 승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것이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최후의 결사전을 준비합니다. 시민군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기동 타격대를 만듭니다. 이들이 5월 27일 새벽항쟁에 함께 합니다. 어쨌든 간에 5·18항쟁은 5월 27일 끝났습니다.

### **민중항쟁, 그 이후**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8월 7일날 주한미군사령관 위컴이 LA타임즈와의 회견에서 “전두환이 부자연스럽지만 지도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고, 한국인은 맹목적으로 우두머리를 따르는 들쥐들처럼 그의 주위로 모여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줄지에 여러분들은 들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인 8월 8일에 위컴이 AP통신 서울 특파원과 회담을 하면서 “전두환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고 한국국민들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한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지지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한국인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충 다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월 16일에는 최규하가 더 이상 허수아비 대통령직 못하겠다고 물러납니다. 물론 그동안에 군부의 압력이 있었을 겁니다. 8월 17일에는 워싱턴포스트지가 ‘미국 정부는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에 추대되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8월 27일에는 전두환이 앞서 말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회의, 즉 통대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렇게 미국은 대통령 갈아 치우기, 죽여 버리기부터 시작해서 권력 바꿔치기, 새 대통령 세우기까지 일관된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해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89년, 90년에 걸쳐서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 진영구조, 냉전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이라크를 혼내준 아버지 부시가 92년 2월에 94년부터 99년 회계연도까지 5개년동안의 방위계획 지침을 마련합니다. 그 지침을 참고삼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연방의 붕괴와 걸프전이라는 두개의 승리가 새로운 국제환경을 창조했으며 미국의 전 지구적 리더십을 재확인했다고 생각한다. 향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첫째 목적은 구소련연방지역이나 그 외 다른 곳에서 과거 소련이 제기했던 것과 같은 위협을 제기하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적대적 세력이 세계적 강국을 배양할 만한 자원을 가진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예

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 강국으로 키울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지역을 강국이 되려는 나라가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중요한 지역들은 서유럽, 동아시아, 구소련방 영토 그리고 남서아시아 지역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잠재적 경쟁자들이 보다 큰 지역적 또는 세계적 역할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무서운 것이 세계적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추구하는 것마저 막아야 한다, 지역적 패권국의 출현도 막는다는 겁니다. 골목대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서운 논리죠.

그 다음은 태평양 지역, 우리가 해당되는 곳인데 “우리가 태평양 지역에서 갖고 있는 사활적인 정치적, 경제적인 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이 지역에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의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미국은 균형자적인 힘으로 행동함으로써 지역적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권력 공백이나 지역적 패권국의 출현을 방지할 수 있다.” - 지역패권국의 출현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동맹국들, 특히 한국, 일본 등의 역할 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정 파괴적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있어야지, 일본이나 한국이 좀 힘이 세져서 역할이 증가되는 것은 안정 파괴적이니 그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통일될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 그럼 자신들이 상정해 놓은 안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를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91년 국방부 방위계획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방부 부장관으로 있

는 월포이츠가 작성한 것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선진국들이 우리의 리더십에 도전하거나, 심지어 더 큰 지역적, 지구적 역할을 탐내는 것을 포기시켜야 한다 ... <중략>... 미국은 우리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을 위협하거나, 혹은 국제관계를 심하게 와해시키는 사악한 세력을 없앤다는 책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지금의 부시기문은 91년에 벌써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거나, 동맹국 또는 우방을 위협하는 국제관계를 심각하게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을 사악한 세력으로 규정을 합니다. 악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세력은 거세, 타도, 멸절의 대상인 겁니다. 77년 카터대통령 당시에 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국가안보회의 의장을 했었고, 현 콜롬비아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브레진스키가 미국의 유라시아에 대한 지정전략에 대한 견해를 밝힌 적이 있는데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 “전통적인 용어를 빌려서 쓴다면 방간의 결탁을 방지하고 안보적 의존성을 유지시킨다. 조공국을 숙명적인 피보호국으로 남아있게 만들고 야만족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걸 막는 일이 될 것이다” - 한심한 야만인들이 하나 되는 걸 막는다는 얘긴데, 여기엔 우리가 통일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의 세계적 개입이 지녀야 할 장기목표로 두 가지를 딱 집어내는데, 첫째는 ‘전지구적 무정부상태를 피할 것’인데, 이는 세계적 경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로는 ‘경쟁적 강국의 출현을 막는 것’인데, 지금은 강국이 없으니까 아예 강국이 나타나는 걸 미리 막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의 여러 나라 중 한 나라인데 ‘세계전략’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1950년입니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처음으로 썼

습니다. 미국은 '세계전략을 50여 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對)3세계전략, 대사회주의권전략, 대서방동맹국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세계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든 사고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미국은 5·18이후 83년 10월 카리브 해의 13만 명이 사는 조그만 섬나라인 그라나다를 침공했습니다. 89년 12월에는 파나마를 바보로 만들고 그 나라 대통령을 잡아다가 콩밥을 먹였습니다. 91년에는 걸프전, 다시 말해서 이라크를 침략하고, 92년에는 소말리아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다 알겠지만 유고를 치고 보스니아를 치고 아프가니스탄을 치고, 이번에 이라크를 또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어디로 할까 지금 궁리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강대국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런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타민족형제들,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중국인들, 화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차별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동남아시아, 중남미 곳곳에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나가있는데, 거기 현지공장에서 일하는 현지노동자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기업들, 일본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노동자들을 모욕하고 차별하고 착취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훨씬 더 악랄하게 못된 짓을 하고 있다

는 겁니다. 그런 나라의 사람, 그 나라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보고 제국주의라고 욕하고, 우리는 무지하게 당하고만 사는 선하디 선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악마로 보인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강하게 되면 아마 미국보다 10배는 더 악랄한 짓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반성적 성찰이 전제된 미국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이만 정리하겠습니다.